

유한한 것은 '무한'을 꿈꾼다

장영애 개인전 '갈망의 초상'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내일부터 19일까지 장영애 개인전 '갈망의 초상 - Nowhere NOWhere'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며, 콘서트서화(서화아트스페이스), 도시갤러리(전북도교육청), 우진청년작가전(우진문화공간), 세계문화유산화화전(부여), 전국청년작가 미술 공모 선정작가전(인사아트갤러리), 북반오시 개전(우진문화공간)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기획 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8 전국청년작가 선정작가상, 2017 김치현청년작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 I-A-M art berlin now residency(레지던시)와 2014 우진청년작가상 선정되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평범한 소재를 매개로 작가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지난 전시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전시는 '갈망의 초상'이라는 타이틀로 자아와 얼굴을 마주하고 그 얼굴에 대해 직시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약한 개체는 '갈망'을 동경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음'을 갈망하게 되고, 오르는 자는 '더 높음'을 열망하게 되고, 유한한 것은 '무한'을 꿈꾸게 된다. 인간이기에 당연한 욕구이고, 살아가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면으로 방향 전환하여 심리적 초상의 한 모습을 발견하고자 한다.

내면 안에는 마치 다중인격처럼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갈망하고 웅크리고 있는 내면 속의 모습을 수면 위로 건져 올렸다.

또한 결눈이 아닌 그 얼굴과 피하지 않고 눈높이를 같이 한다. 그것은 갈망과 결핍의 얼굴인 것이다. 자의적인 타의적인 결핍에 대해 직시하고 성찰함으로써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가치 있는 곳으로 향하기 위해



서이다. 좋은 사람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행복한 삶이 좋은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고, 원하고 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 하지만, '좋은', '열심히', '행복'의 무게가 몇 그램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질량으로 계량된 수학적 정량이 없기에 단지 각자의 환경에 맞게 생성된 이미지를 쫓아 뛰고 있는 것이다.

'갈망의 초상'은 작가의 자화상이자 동시대 를 달리는 그들의 자화상이다. 그리고 동시에 '결핍의 초상'이다. 이들은 상호대립이 아닌, 대립 없는 이중성, 즉 갈망 안에 결핍을 내포하는 조화로운 등가성 관계 안에 있다. 결핍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에서 부족한 것이 생겨났을 때의 상태이다. 온전하게 존재하는 '있다'와 완벽한 소멸의



상태인 '없다'의 중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작업에 나타난 '갈망의 초상'은 어중간한 '사이의 존재'이다.

일종의 합과 과정에서 완성되고 충족한 것들 이외의 상태로 도태되거나 무시된 우리 사회가 규정된 범주에서 벗어난 사이의 존재들과 닮아있다.

장영애 작가는 "규정된 것과 규정되지 못한 것의 사이에 있는 존재인 것이다. 완벽하게 규정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이며,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핍되고 상실되어 무시된 모습이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의식하면 찾을 수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면 없어져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다시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지난 11일에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는 농악인들의 축제인 '제26회 정읍 전국농악명인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통문화예술인으로 성장케 하는 등용문'

정읍 전국농악명인대회 성료... 대상에 명인부 박성곤 씨

지난 11일에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는 농악인들의 축제인 '제26회 정읍 전국농악명인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사)한국민속예술진흥원(이사장 이광수)이 주최를 하고 정읍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등이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행사이다.

참가는 초·중·고 학생 43명과 일반부 38명이 참여한 6개부문의 개인부 경연과 20개팀 233명이 참여한 단체부 3개부문으로 나뉘어 경연이 펼쳐졌다.

종합대상에는 국회의장상(명인부 박성곤)과 교육부장관상(학생부 권효중)의 영예를 안았으며, 또한 국회사립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2인, 전라북도지사상 3인, 정읍시장상 4인 등 총 50여명에 이르는 시상 및 부상으로 부문별로 진행되었다. 자리에 참석한 유진섭 정읍시장은 "올해로 26회를 맞는 전국농악명인대회

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성인 못지않게 향상된 기량의 많은 청소년들과 농악인들이 참여하는 전국 제일의 농악명인대회로 성장하였다"며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신인 농악인을 발굴하여 훌륭한 전통문화예술인으로 성장케 하는 등용문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민속예술진흥원에서는 출중한 기량을 갖춘 전국 각지의 농악인들에게 정보와 재능을 공유토록 하고, 전문 농악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수 이사장은 정읍에서 초·중 학생으로 구성된 생꽃아그들을 결성 및 지도하여 일본 나리타시와 중국청양 대택산포도 축제 등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펀딩매칭지원사업, 내년 2월까지 연장

예술가의 재원 확보에 대한 부담 완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는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사업 지원 기간을 기존 12월에서 2019년 2월까지 추진되는 프로젝트까지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술위는 2016년부터 사용자(예술단체, 예술가, 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텃밭벽(민간 후원형 대표 플랫폼)과 MOU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선매칭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위원회는 "펀딩 목표금액의 25%를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매칭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계에서 다양한 재원 발굴을 견인함으로써 지나친 공공재원 의존도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목표금액을 100% 달성해야만 후원을 전담하는 펀딩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예술위원회의 지원은 연말을 앞두고 다양한 전시·공연 등을 기획중인 예술가·단체의 재원 확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효과가 있다.

예술위원회의 크라우드펀딩매칭지원사업은 예술가·단체의 자생적 재원조성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계 개인 후원 참여 활성화를 통한 기부 총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예술위원회는 2011년 국내 처음으로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개설해 펀딩 홍보를 지원해 왔다.

지난 3년간 71건의 프로젝트를 진행, 5억 5200여만원 모금에 성공했다. 2017년 스트리트

댄스팀 아티지의 국제대회 진출을 위한 펀딩이 목표금액 600만원의 105%를 모금해 미국 LA 월드 오브 댄스(WOD) 파이널 2위를 차지하는 쾌거로 이어졌고, 2018년에는 여러 지원사업 문턱에서 번번이 탈락하여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창작 뮤지컬 '풀'이 523명의 후원으로 펀딩에 성공하여 성황리에 무대에 올랐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은 문화예술분야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그들의 창작활동이나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계획을 알리고 자금을 마련하는 온라인 기부 모금플랫폼이다.

/뉴스

익산시, 문체부 생활SOC공모사업 작은도서관 분야 선정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19년 생활SOC사업 작은도서관 분야에서 청소년수련관 내 북카페 조성 사업에 선정, 국비 9,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청소년수련관 북카페 조성 사업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활동하는 공간인 청소년수련관 내 식당을 활용하여 북카페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작은 도서관 형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열려 있는 편안함, 슬터를 제공하며, 책을 읽고 또래 모임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놀이터이자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카페형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면 청소년수련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통과 공감을 추구하는 문화캠퍼스존으로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 분야 SOC사업에 공모하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이곳저곳 방황하지 않고 언제라도 찾아와 쉬면서 스트레칭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